이 책의 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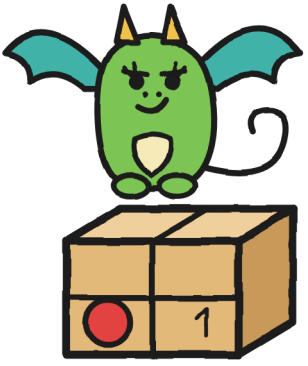
_____

다른 누구 것도 아니야. —J.

불가능 배달 · 1

이 택배는 문다

Lui Eriksson



사이즈 XL · 삽화 소설 · 13+

불가능 배달 1
이 택배는 문다

글과 그림: Lui Eriksson

한국어판: LinguAula

사이즈 XL · 삽화 소설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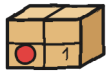
초판: 2026

© 2026 Lui Eriksson · info@linguaula.com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글꼴: Gowun Dodum, Gaegu, Nanum Pen Script, Nanum Gothic Coding, Andika, Patrick Hand, Caveat, Courier Prime (SIL OFL 라이선스).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제1장

안 되는 택배

이 공책은 이삿짐 14번 상자에서 나왔다. 상자에는 '부엌'이라고 쓰여 있었다. 굵은 매직으로, 바쁜 사람의 글씨로. 안에는 숟가락 하나 없었다. 있는 거라곤 이 공책과 양말 한 짝, 그리고 누구 것도 아닌 고무 개구리뿐이었다. 엄마한테 물어봤다. 개구리한테도 물어봤다.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공책은 내가 내 거라고 했다.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려고 첫 장에 큼직한 글씨로 제목을 썼다:

배달 공책. 주인: 구니. 비밀.

비밀은 내가 먼저 읽는다는 뜻이야. —J.

'비밀'이라고 쓸 때는 이 초록색 메모가 없었다. 초록색 메모는 하나도 없었다. 메모는 훌리타가 하나씩 적어 넣는다. 훌리타는 하루 만에 내 공책을 나보다 먼저 읽는 버릇이 들었고, 가끔은 내가 쓰기도 전에 읽는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다. 순서대로 가자.



우리는 화요일에 도착했다. 오늘은 토요일이다. 이 동네에 온 지 나흘째인데, 벌써 길 하나를 통째로 안다. 우리 집이 있는 길이다. 집이 여섯 채 있고, 그 둘레는 전부 물음표다.

이사하고 싶은지 나한테 물어본 사람은 없었다. 어른들이 부엌에서, 이미 정해진 일을 말할 때 내는 그 목소리로 결정했고, 엄마는 그걸 '기회'라고 불렀다. '기회'는 어른들이 반품이 안 되는 것을 부르는 말이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내 방을 떠나는 게 아니었다. 이삿짐 트럭에 타고서야 나 자신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 친구는 있었다. 하지만 그건 다른 문제다. 예전 동네에서는 친구가 공장에서부터 딸려 왔다. 세 살 때 놀이터에서 모래 양동이와 삽이랑 같이 받는 거라서, 그다음엔 따로 할 일이 없었다. 사귀는 방법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학교에서는 소수 나눗셈은 가르쳐 줘도 친구 사귀는 법은 안 가르쳐 준다. 다들 친구를 이미 달고 입학한다고 치니까.

그래서 나는 뭔가를 할 줄 모를 때 늘 하는 일을 했다: 계획을 세웠다.

친구를 사귀는 내 계획:

1. 인사하기.
2. 재미있는 말 하기.
3. ???

나는 2번에서 막혔다. 3번은 감도 잡히지 않았다. 사흘 동안 막혀 있었다. 그때는 3번이 셋 중에서 제일 쉽다는 것도, 단어 두 개면 다 들어간다는 것도 몰랐다.

새 방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닫힌 상자로 가득하고 내 것은 하나도 없어서, 호텔에서 자듯이 잔다. 빌려 쓰는 기분으로, 옷을 손 닿는 데 둔 채로. 그래서 오늘 아침 창문 앞을 날아가는 무언가에 그렇게 금방 잠이 깬 것이다.

택배였다.

있는 그대로 쓴다. 실제로 그랬으니까. 신발 상자만 한 골판지 상자 하나가, 한쪽에 빨간 도장이 찍힌 채, 내 창문 높이로 날아서 지나갔다.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제 볼일 보러 가는 사람처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나갔다. 또 하나가. 택배 아홉 개가 오리처럼 줄지어 길을 건너더니, 하나씩 차례로 맞은편 가게의 우편함 속으로 쏙 들어갔다. (나머지 열한 개는 내가 자는 동안 이미 돌아와 있었다고, 나중에 알았다.)

가게 간판에는 '불가능 배달'이라고 쓰여 있다. 그 밑에 더 작은 글씨로 '아무도 배달하지 않는 걸 우리가 배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시 생각해 보고 나중에 덧붙인 것처럼 더더욱 작게, '(거의 항상)'.

2번에 쓸 말이 생겼다. "날아다니는 택배를 봤어."

그건 재미있는 말이 아니야. 아주 흔한 일이잖아.

이 메모를 쓴 사람은 훌리타다. 바로 오늘 아침 맞은편 가게에서 만났다. 훌리타는 초록색으로 쓰고, 초록색으로 쓴 글씨는 지워지지 않는다. 지우개로, 침으로, 스웨터 소매로 차례대로 해 봤다. 지우개는 닳았다. 초록색은 안 닳았다.

줄무늬 스웨터를 잠옷 위에 걸치고 길을 건넜다. 잠옷을 입은 채로라는 말이다. 슬리퍼를 신고. 머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정해 버리는 일이 있다.



안에서는 골판지 냄새와 무언가 탄 냄새가 났다. 촛불을 끌 때 나는 냄새 같았다. 왼쪽에는 '반송품'이라고 쓴 빨간 팻말이 붙은 선반이 있었고, 선반 위에는 1번부터 20번까지 번호가 붙은 택배 스무 개가 각자 도장을 하나씩 찍은 채 놓여 있었다. 그 앞에서 보라색 모자를 쓴 마녀가 택배를 하나하나 가리켰다. 옆에서는 초록색 멜빵바지를 입은 여자아이가 큰 소리로 세고 있었다:

"...열여덟, 열아홉, 스물."

"전부 돌아왔네." 마녀가 말했다. "또 이러네."

내가 누구냐고, 왜 잠옷 차림이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 보통 가게라면 그것부터가 이상한 일이다. 그 가게에서는 그날 아침의 이상한 일 축에도 들지 못했다.

마녀의 이름은 마라다. 불가능한 배달을 하는 가게의 주인이고, 빛나는 도장을 가지고 있다. 도장을 찍으면 불꽃이 톡톡 튀는데, 그 불꽃에서 아까 그 탄 냄새가 난다. 훌리타가 도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 공책에 직접 설명해 줬다. 화살표가 가득한 그림이라 반 쪽이나 차지해서, 여기에는 줄여서 옮긴다:

- 택배 + 도장.
- 받는 사람이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서명했나?
- 예: 배달 완료.
- 아니요: 해 뜰 때 택배가 날아서 선반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사라지는 택배는 없어. 배달되는 택배도 없고.

선반에 있는 건 돌아온 택배들이다. 아무도 한 번도 배달하지 못한 택배 스무 개. 그리고 전부 같은 사람이 보냈다. 라벨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빽빽한 글씨로 '보내는 사람: R.'이라고 쓰여 있었다.

"R.이 누구예요?" 내가 물었다.

"글씨가 엉망인 사람이지."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게 다였다. 이미 여러 번 해 본 말을 할 때처럼, 선반은 쳐다보지도 않고 벽에서 볼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한 점을 바라보며 말했다. 훌리타가 마라 아줌마와 동시에 입술을 달싹였다. 대답을 외우고 있는 거였다. 그리고 그 대답이 훌리타에게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다.

마라 아줌마는 돌아온 택배 열아홉 개를 어깨에 메는 커다란 자루에 넣었다. 그날 밤 아주 먼 곳의 등대에 피아노를 배달해야 했는데, 나가는 김에 이 택배들도 전부 다시 시도해 볼 작정이었다. 해 뜰 때 돌아온다고 했다. 아무 기대도 없는 목소리였다. 이미 말라 죽은 화분에 버릇처럼 물을 주는 사람의 목소리.

선반에는 하나만 남았다. 줄 맨 앞의 것. 1번.

"그건 안 돼." 마라 아줌마가 말했는데, 우리한테 하는 말 같지는 않았다. "규칙은 딱 하나야. 선반에 손대지 마."

"물론이죠." 훌리타가 말했다.

나는 훌리타 뒤에 서 있어서, 등 뒤로 꼰 손가락이 보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가 처음으로 나눈 것이었다. 2초짜리 비밀. 서로 이름이 뭔지도 알기 전에.

훌리타는 토요일마다 가게에 있다. 마라 아줌마와 어떤 사이인지는 묻지 않았다. 조카인지, 조수인지, 벌인지. 둘째 날에 하는 질문이 있다.

이제 둘째 날이야. 물어봐. —J.



문이 닫히자마자 훌리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느긋하게. 도장 찍을 만한 택배인지 가늠하는 눈으로.

"너, 배달할 줄 알아?"

여기서는 솔직해야 한다. 이 공책은 비밀이고, 어차피 훌리타가 읽을 테니까.

사실 나는 평생 딱 하나를 배달해 봤다. 2층 집 신문이다. 어느 일요일에 현관 앞에 신문이 나뒹굴고 있었는데, 영웅이 필요해 보였다. 나는 신문을 그 집 개한테 줬다. 개는 신문을 먹어 버렸다. 내 경력은 거기서 끝났다.

그리고 나는 친구가 간절히 갖고 싶을 때 하는 말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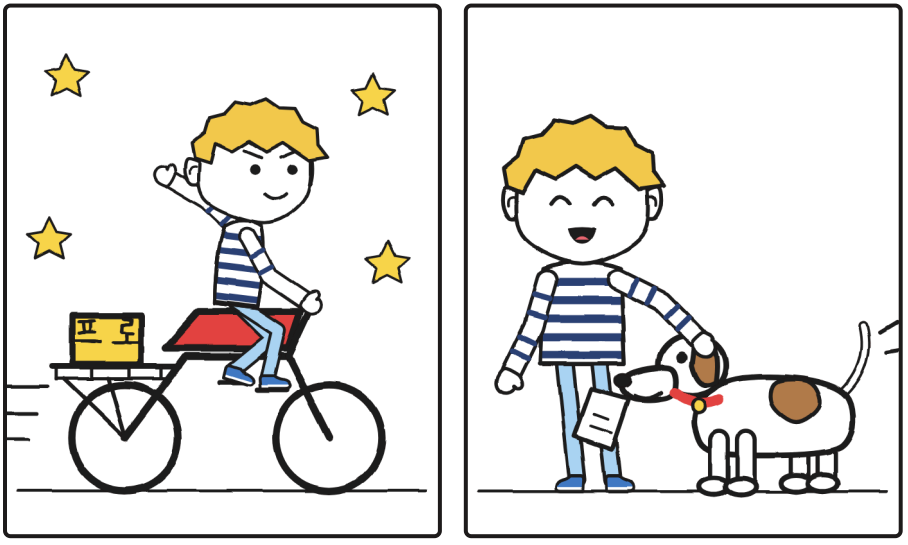
"응. 예전 동네에서 나는 배달 전문가였어."

강아지 전문가.

거짓말은 도장이 찍힌 택배와 같다. 아주 의젓하게 날아가서, 땅에 닿지도 않고 길을 건너고, 언젠가는 돌아온다. 그때는 이 거짓말이 언제 돌아올지, 누가 소리 내어 읽게 될지 몰랐다.

훌리타는 증거를 대 보라고 하지 않았다. 곧장 선반으로 걸어가서 하나 남은 택배를 꺼냈다. 1번 택배를. 안 되는 그 택배를. 훌리타의 손이 조금 떨렸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적어도 무서워서만은 아니었다. 시합 내내

벤치만 지키다가 마침내 감독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의 떨림이었다. 내 손도 떨렸지만, 나는 훨씬 더 잘 숨겼다. 티가 난 건 스웨터를 뒤집어 입었다는 것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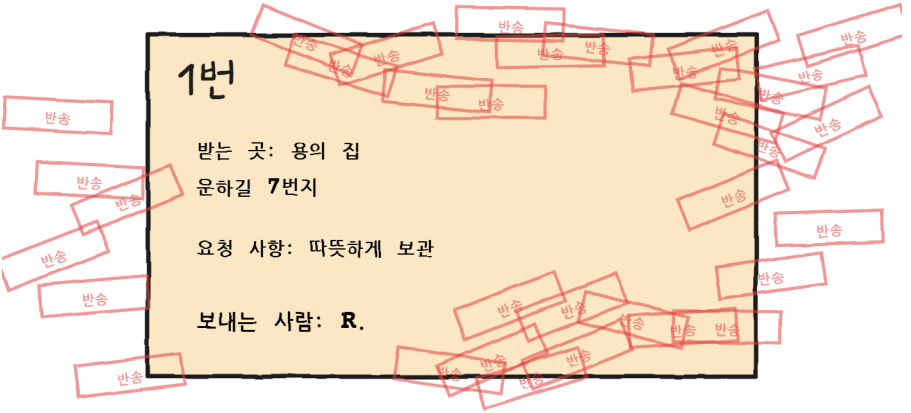


‘반송’ 도장을 세어 보았다. 서른일곱 개. 라벨은 라벨이라기보다 도장이었다.

그 빨간색 밑에는,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을까 봐 적어 두자면, 이렇게 쓰여 있었다:

- 받는 곳: 용의 집, 운하길 7번지.
- 요청 사항: 따뜻하게 보관.
- 보내는 사람: R.

“해 뜨기 전에 배달하면, 마라 아줌마도 내가 돌아온 택배를 배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겠지.” 훌리타가 말했다.



"안 되면?"

"안 되면 혼자 돌아올 테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아주 좋은 계획 같았다. 계획에 있어야 할 두 가지가 다 있었다. 잘되면 상이 있고, 잘못돼도 아무 결과가 없다는 것. 그때는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아직 몰랐다.



누군가 자전거 벨을 울렸다. 두 번,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처럼. 가게 진열창에 헬멧을 쓰고 노란 가방을 멘 남자아이가 나타났다. 가방에 쓰인 글씨는 가게 안에서도 읽혔다. '번개배송. 10분 안에 못 오면 공짜!'

"불가능 배달?" 남자아이가 말했다. 다른 토요일에도 같은 농담을 해 본 사람의 말투였다. "너희가 뭘 하나라도 배달하는 게 불가능이지."

토요. 엄청 빠르게 엄청 지루한 걸 배달한다.

"그럼 오늘은 이걸 배달하겠어." 훌리타가 택배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토뇨는 '용의 집'이라는 글자를 읽더니 너무 크게 웃다가 헬멧을 떨어뜨렸다. 헬멧은 문까지 굴러갔다. 토뇨는 계속 웃으면서 헬멧을 주웠는데, 몸을 일으켰을 때는 이미 웃고 있지 않았다.

"운하길에는 7번지가 없어." 토뇨가 말했다. "5번지에서 바로 9번지로 넘어가. 내가 찾아봤거든."

"근데 그건 왜 찾아봤는데?" 훌리타가 물었다.

토뇨는 헬멧을 썼다. 이유도 없이 벨을 한 번 더 울리고는 아주 빠르게 페달을 밟아 가 버렸다. 토뇨는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 나오면 늘 그런다. 나는 정보 두 개를 챙겼다. 토뇨가 7번지를 찾아본 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번개배송도 모든 일에 빠른 건 아니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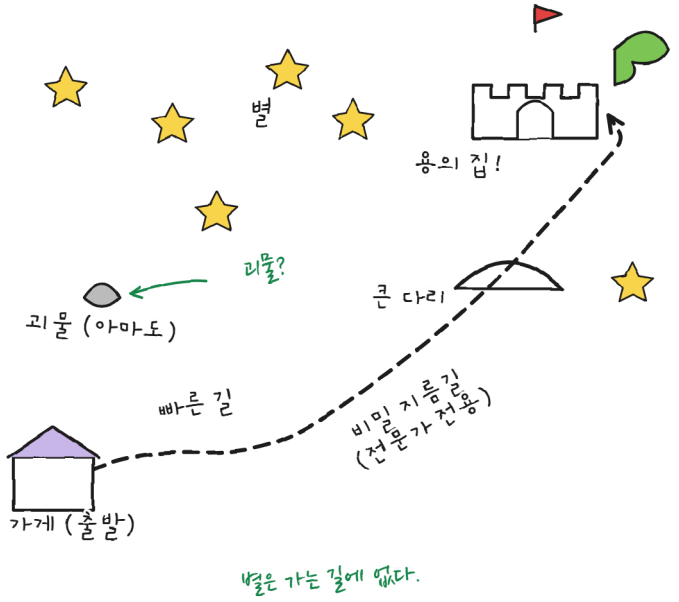
배달 약도를 그렸다. 배달 전문가는 약도를 그리는 법이고, 나는 엄밀히 말해 내가 전문가라고 말한 사람이니까.

약도에는 '빠른 길', '비밀 지름길(전문가 전용)', '큰 다리', '괴물(아마도)', 그리고 별 여섯 개가 있었다. 별은 아무 역할도 없었다. 그냥 별 없는 약도는 진지한 약도가 아닌 것 같았다.

괴물도 가는 길에 없어. 확인했어. —J.

별이 하나도 없는 진짜 길로 우리는 큰 다리를 건넜다. 낮에는 다리가 내려져 있어서 누구나 건넌다. 자전거도, 장바구니 수레를 끄는 아주머니들도, 오리를 안은 아저씨도. 훌리타는 다리 한가운데로, 도장과 잉크 이야기를 아주 빠르게 하면서 물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건넜다. 물을 여러 번 봐서 익숙한 줄 알았다. 멜빵바지 주머니에서는 카운터에서

가져온 모래시계가 비죽 나와 있었다. 해가 뜨기까지 얼마 남았는지 알려주는 물건은 아니다. 모래가 떨어지는 걸 보며 초조해지는 데나 쓴다. 배달에 모래시계를 챙겨 가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마음에 들었다. 나는 잠옷을 입고 왔는데.



운하길 7번지는 집이 아니었다. 벽이었다.

토뇨 말이 맞았다. 5번지 다음이 바로 9번지였고, 둘 사이에는 문도 창문도 초인종도 없는 매끈하고 밝은 색 벽이 있을 뿐이었다. 벽에 달린 것이라곤 아주 낮은 곳, 바닥에 거의 닿을 만큼 낮은 곳, 아주 작은 무언가에게 딱 맞는 높이에 붙은 놋쇠판 하나뿐이었다. 판에는 발 모양의 홈이 파여 있었다. 위쪽에 작은 홈 네 개, 아래쪽에 큰 홈 하나. 누군가 아주 오래전에 거기에 무언가를 대었고, 벽이 그 모양을 간직해 버린 것 같았다.

"어쩌면 우편함일지도 몰라." 내가 말했다.

택배는 들어가지 않았다. 옆으로 세워도 안 들어갔다. 모서리부터 밀어 넣어도 안 들어갔다.

우리는 벽을 상대로 해 볼 수 있는 건 다 해 봤다:

1. 손마디로 두드리기. (아무 반응 없음.)
2. 소리 지르기. (아무 반응 없음. 소리만 더 컸음.)
3. 위로 넘겨 보기. 나는 보기보다 힘이 센 훌리타의 어깨 위에 올라가 고개를 내밀었다. 반대편에는 또 다른 벽이 있었다.
4. 포기하기. 이게 우리가 제일 잘한 일이었다.

옆집 발코니에서 제라늄에 물을 주던 아주머니가 물뿌리개를 허공에 든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영화는 이미 본 사람 같은 얼굴로.

"그 택배는 몇 년째 여기에 오고 있단다." 아주머니가 말했다. "올 때마다 온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나쁜 뜻 없이, 일기예보를 전하듯 말하고는 다시 물을 주었다. 이 동네에서는 배달할 수 없는 택배도 날씨 같은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걸 나는 이해했다.



추웠다. 막 시작한 가을의 추위, 소매 속으로 파고드는 종류의 추위였다. 훌리타는 마지막으로 읽은 뒤에 바뀌기라도 했을까 봐 그러는 듯 라벨을 다시 낮게 읽었다.

"'따뜻하게 보관'이래. 그런데 몇 년째 얼음장 같은 선반에 놓여 있었다니."

나는 새로 왔다. 무언가에 '따뜻하게 보관'이라고 쓰여 있으면, 나는 따뜻하게 보관한다. 새로 온 사람은 설명서를 읽는다. 우리에게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 어떤 설명을 무시해도 되는지 아직 모른다. 다른 사람들은 한곳에 너무 오래 있어서 더는 읽지 않는다. 이미 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끔은 그들이 아는 것이 틀렸다.

택배를 스웨터 안에 넣고 큰 다리를 다시 건넌 다음, 엘리아 아줌마네 빵집 환기구 위에 앉았다. 오븐의 바람이 나오는 곳이다. 환기구는 바닥에 붙어서 벽에 닿아 있고, 거기서 빵 껍질 냄새가 나는 미지근한 바람이 올라온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택배를 배에 붙인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잠옷을 입고 바닥에 앉아 옷 속에 상자를 품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위엄을 갖추고서. 훌리타는 모래시계를 뒤집고는 선 채로 망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 꼭 아기 배 우체통 같아.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우리는 한참 그렇게 있었다. 빵 냄새가 났다. 나는 땀이 나기 시작했다. 땀 생각을 안 하려고 이야기를 했다. 아니, 내가 했고, 훌리타는 딱 필요한 만큼만 대답했다.

"이건 왜 그렇게 꼭 배달하고 싶은 거야?" 내가 물었다. "열아홉 개가 더 있잖아."

훌리타는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모래시계를 뒤집었다.

"세는 것과 배달하는 건 다르니까." 훌리타가 말했다. "나는 여러 토요일 동안 세기만 했어."

그다음에 훌리타가 예전 동네는 어땠냐고 물어서, 하마터면 사실대로 말할 뻔했다. 거기서 뭔가를 한 기억은 없고 그냥 거기 있었던 기억뿐이라고. 나는 고무 개구리 같다고. 아직 제 자리가 없다고. 입을 열어 말하려는데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메달이 주렁주렁 달린 오토바이가 나오는 이야기였다. 훌리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내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다. 훌리타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게 그날 아침 최고의 일이었다.

그때 무언가가 내 배를 톡 쳤다. 톡.

"방금 네 배에서 난 소리야?" 훌리타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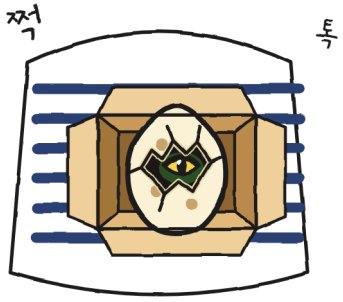
"내 배는 '톡' 소리 같은 건 안 내."

톡. 톡.

스웨터를 걷었다. 택배 뚜껑 밑에는 동그랗고 창백한, 얼룩덜룩한 것이 있었다. 신발 상자도 아니고, 상자에 담아 파는 어떤 물건도 아니었다. 쳐다보는 동안 금이 점점 커졌다.

쩍.

그리고 택배가 나를 쳐다보았다.



금 한가운데에 노란 눈 하나가 활짝 뜨여 있었다. 택배를 잘 아는 훌리타를 보지 않았다. 빵집도, 모래시계도, 모든 것이 해 뜰 때 돌아오는 하늘도 보지 않았다.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흘 만에 처음으로, 물음표 같은 집들이 모인 그 동네에서, 누군가가 내가 누구인지 완전히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도 내게 알려 주지 않았다. 택배가 나를 고르는 배달도 있다는 것을.